

온 나라 울린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

민주노총 전국 13곳 129주년 세계노동절대회 열어 ...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노동법 개악 분쇄”

5월 1일 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노동자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서울광장 등 전국 열세 곳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한반도 자주통일 2019 세계노동절대회’를 열었다. 수도권 3만여 명을 포함 전국에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지역별 대회에 참가해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재벌독점체제 전면 개혁 ▲사회안전망·사회 공공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세계노동절 수도권대회 시작에 앞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택시회 이인근 지회장이 연단에 올라 13년 동안 전개한 부당 정리하고



철회 투쟁 승리를 보고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모질고 긴 13년 투쟁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온몸으로 연대하고 지지한 덕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의 자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성급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모자라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며 노조 공격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100만 조합원과 더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약자와 굳건히 연대하고 단결해 사회 대개

혁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선언했다.

대회를 마무리하며 민주노총 열여섯 개 산별노조 연맹노조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민주노총 129주년 세계노동절 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굳건한 연대와 단결 투쟁”을 선언했다.

세계노동절 수도권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섯 개 방향으로 나누어 서울 도심에서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 누구나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세상’이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리 집회 투쟁사에서 “지금 국회는 노조법 개정 요구는 외면하고 폭력으로 법을 짓밟고 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노동법 개악에 들어가는 순간 18만 총파업으로 분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일자리 위원회에 ‘일자리’를 요구한다”

금속 서울지부 신영, 성진, 레이테크 해고 여성 노동자, 일자리 위원회 찾아 대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5월 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여성 노동자 고용 참사 일자리 위원회 규탄, 일자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신영프레시전, 성진씨에스, 레이테크코리아 등 모두 최저임금을 받던 여성 노동자들이 원청과 사장 갑질 등으로 부당해고돼 생존 위협을 받

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조선과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과 대량해고가 벌어질 때, 동시에 많은 여성 노동자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잘려나갔다. ‘여성 노동자들은 애들 학원비나 벌러 나왔다’라는 차별 인식과 방관 속에 사업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여성 노동자를 해고했다”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실무자를 만나 오는 5월 9일 이목희 부위원장과 면담약속을 잡았다. 투쟁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원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1인 시위와 문화제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선제 총파업, 노동법 개악 막는다”

129주년 세계노동절 경북대회 ... “포스코에 민주노조 뿌리내리는 투쟁 한다”

경상북도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9회 노동절을 기념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포스코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사내하청지회 등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5월 1일 포항 형산근다리 근처 포항 협력회관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ILO 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129주년 세계노동절 경북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경주지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을 포함해 1,500여 명의 노동자가 대회에 참가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129주년 노동절을 맞아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절 대회를 벌였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벌의 손을 잡고 노동자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노동자 권리는 노동자 손으로 쟁취해야 한다. 국회와 정권이 촛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거리에서 노동자가 투쟁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태영 본부장은 “금속노조가 선제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에 맞선 선제 총파업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아합으로 벌어질 노동권 후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미란 공공운수노조 김천통합관제센터 분회장이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거짓



정규직화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김천시청에 원직복직과 진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사를 했다.

차현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지회장은 지회 투쟁상황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권의 노동조합 팔다리 자르기에 맞서 조합원들을 조직해 싸우자고 촉구했다.

“포스코에 민주노조 물결쳐라”

노동절 대회를 마친 경북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포스코 본사를 향해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포스코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형산강 다리를 건넜다.

조합원들은 포스코 본사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노동개악 저지 경북노동자 결의대회’를 벌였다. 현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최광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대명분회장, 김태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장, 황봉우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이 연단에 올라 포스코의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고, 포스코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현대정 노조 포스코지회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포스코의 민주노조

에 대한 태도는 변화가 없다. 저를 해고하고, 지회 간부를 징직, 감봉 징계해 노조를 길들이려고 하고, 노조가 산재 사고를 알렸으며 조합원을 징직, 감봉 징계했다”라고 폭로했다.

현대정 지회장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등 행정기관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포스코의

편을 들고 있다. 힘센 놈들 앞에서 입 다무는 노동관료 때문에 포스코 노동 현장의 민주화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대정 지회장은 “포스코와 정부 기관이 째짜미해 탄압해도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에서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꺾이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최광식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대명분회장은 “포스코가 어용노조를 세워 민주노조 조합원들과 차별하고, 교섭권을 빼앗아 가면 우리가 싸움을 포기할 거라 생각했나 보다”라며 “우리는 소수노조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굽히지 않고 현장의 주도권과 기준을 잡아가는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광식 분회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무법천지 현장을 바꾸려는 많은 선배노동자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다. 포스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경북의 각 산별 대표자들이 ‘노동개악’, ‘비정규직’, ‘법외노조’, ‘특수고용’, ‘노동탄압’을 상징하는 대형 얼음덩어리를 문구가 박살 내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대회를 마무리했다.